

성경 신자들의 믿는 바와 실행

성경말씀: 딤후2:1-2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행11:26), 조롱의 대상(행26:28), 핍박의 대상(벧전4:16), 313년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 공인, 유아 세례, 로마 제국에 살고나 태어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 마리아를 섬기면서도 그리스도인,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안식교, 물론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대는 혼동의 시대,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 그러므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실행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이 교회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행하는가?

요즘 우리는 성경 신자(Bibles believer)라는 말을 쓴다. <성경 신자들의 믿는 바와 실행>

바울의 유언

딤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언, 목회자가 해야 할 일

1.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전한 자가 되라(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전투할 줄 아는 군사가 되라.
2. 내게서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The same)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것을 전달하면 안 된다. 바울에게 들은 것 바로 그것 '그 동일한 것'만을 전달해야 한다. 그 후손이 또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3. 이것은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이다.
4.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자손들에게 전달하였다(골1:2-3).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과 실행을 우리 자신이 먼저 터득하고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

성경신자의 믿음과 실행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다(엡2:8).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 이외의 믿는 바와 실행이 다른 분이 너무 많다.

침례성도 (Baptists)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3.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4. 교회의 두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7. 지역 교회의 두 직무(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미국의 여러 독립침례교회들은 믿음과 실행을 침례성도 즉 'Baptists'의 8글자를 가지고 설명한다. 적어도 이 8개를 믿고 실행해야 신약 시대의 성경 신자라고 할 수 있다.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유일한 권위
 -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 교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다.
 - b. 또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다(마24:35).
 - c.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독립/자유 교회는 크리스천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으며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다.

d.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로서 우리도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e. 킹제임스 성경만 있다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원리대로 교회를 해야 성경적인 교회이다. 다음의 7가지는 신약 교회의 믿음과 실행이다.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a. 마16:18,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었다.

b.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독립/자유 지역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으며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기경, 감독, 총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믿는다.

c. 각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요, 조직체이다이다.

d. 대전 은혜침례교회, 광주 은혜침례교회,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e. 장로교 교단장, 노회장, 감독 교회는 교황 시스템 교회

f. 온누리 프렌차이즈 교회, 구원과 교회

3. 모든 성도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다.

b. 이것은 영적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것이며 구약 시대에 존재하던 육적 제사장 직무는 사라졌음을 뜻한다.

c.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사제, priest)을 두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믿으며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같은 걸치레 의식주의를 배격한다.

d. 이 모든 것은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요, 예수님의 신약교회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더불어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다(마27:51).

e. 구약 시대 신정정치 스타일의 교회 No! (천주교, 장로교 시스템) 철저히 신약 식 교회를 한다.

4. 교회의 두 가지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시청각 교육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다.

b. 우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온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만 함을 믿는다.

c.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유아세례가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d. 또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키며 천주교회의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는다.

e. 천주교회에서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Sacrament)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것을 '성만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 관행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 부른다.

- f.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만 함을 믿는다.
 - g. 이 외에 우리는 세족식 같은 것을 신약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는다.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다.
 - b.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중세 이슬람교도나 천주교도 그리고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처럼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 c.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믿는다.
 - d. 반면에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회계 보고 할 줄을 믿는다(롬14:10-12; 히9:27).
 - e. 목사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이지 영혼의 자유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고후1:24).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었다.
 - b. 중세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유아세례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다.
 - c.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독립/자유/자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다.
 - b.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
 - c. 우리는 독립/자유 지역교회가 결코 천주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가 아니며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는다.
 - d. 따라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임을 믿는다(히2:11).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 a.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었다.
 - b.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독재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정교 분리
 - c.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고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에도 이것이 파급되어 현대 시민들이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결 론

예수님은 승천하식 전에 대위임의 말씀을 주셨다. 마28:18-19

1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딤후2:1-2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동일한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